

“한·양방 협진으로 ‘코로나 후유증’ 맞춤 치료”

후유증 지속 ‘롱코비드’ 심각성 커져
극심한 피로감·기침 등이 대표 증상
환자가 대면·비대면 진료 선택 가능
“신속한 치료로 만성질환 예방해야”

무섭게 증가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완만하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는 일상을 무섭게 위협하고 있다.

확진자가 늘면서 코로나19 완치 이후에도 각종 후유증이 계속되는 이른바 ‘롱 코비드’(Long COVID)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완치자 2만1615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한 연구에서는 전체의 5분의 1 정도가 코로나19 이후 합병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의 각종 후유증을 집중 치료하는 진료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여러 병원들이 전담 클리닉을 속속 개설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도 그중 한 곳이다.

●코로나 후유증 근골격계 질환 우려

자생한방병원은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각종 증상 치료를 위한 ‘코로나 회복 클리닉’을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 및 자생한의원에 개설하고 11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자생한방병원의 ‘코로나 회복 클리닉’은 환자가 자기 상황에 맞게 대면이나 비대면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코로나19 완치 이후의 후유증뿐만 아니라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이 코로나 회복 클리닉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사진제공 | 자생한방병원

받고 있는 사람도 클리닉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병원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일반 환자와 동선이 완벽하게 분리된 진료 환경에서 치료부터 접수, 수납 등 모든 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은 기침, 가래와 같은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발열, 피로, 후각이나 미각 상실, 두통, 어지럼증 등 매우

다양하다. 코로나19 후유증의 경우에는 극심한 피로감이나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후유증이 지속될수록 완전한 일상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치료에 만만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 면역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늘려 척추와 관절에 신경학적으로 염증성 통증을 유발해 전체 환자의 약 10%가 1년 내에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한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척추나 관절 같은 근골격계 환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맞춤 치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타민 수액 처방 등 양방 진료도

‘코로나 회복 클리닉’에서는 코로나19 및 후유증 증상별로 한약, 약침, 침, 주사요법 등 세부진료 지침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실시한다. 먼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침, 피로, 발열, 소화 불량 등에 효과가 입증된 한약을 처방해 주요 증상을 완화시킨다.

면역력 강화 효능이 뛰어난 약침치료와 함께 영양혈과 인당혈 등 혈자리에 침치료를 병행해 호흡기를 비롯한 전신 기능의 강화를 돕는다. 또한 주사요법으로 경추(목뼈) 및 두개골을 교정해 누적된 피로를 줄이고 뇌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한방 수기치로도 진행된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X-레이, CT 등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필수 영양분을 공급하는 비타민 수액처방 등 한·양방 협진을 실시한다.

각종 코로나19 및 후유증에 대한 전문적인 한·양방 협진 치료가 타병원의 관련 클리닉과는 다른 자생한방병원 ‘코로나 회복 클리닉’의 특징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은 “한의 학은 점진적인 관점에서 증상의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는 점에서 면역계 이상 증상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데 장점이 있다”며 “코로나19 증상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므로 증상이 만성적으로 발전해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치료에 나서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gna.com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환절기 불청객 피로·무기력증 ‘영양수액’으로 면역력 높여야

봄철 환절기에는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무기력함을 보이는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춘곤증 때문이 아닌 면역력 저하의 신호이다. 환절기에는 피부, 근육, 혈관, 자율신경 등에서 에너지를 평소보다 과다하게 사용해 면역력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몸에 발생하는 염증이 잘 낫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봄 환절기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수액 등의 의학적 대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영양수액 치료는 농축된 수액을 혼합 또는 병용해 처방하는 것으로 각종 내외부 요인으로 떨어진 체력 및 신체 면역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 수액은 메가비타민, 목소리, 스카이, 신데렐라, 백옥, 고미, 마늘, 마이어스 카테일, 멀티블루 수액 등이 있다. 혈액을 통해 영양성분을 공급해 경구제 투약보다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면역력 회복,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치료 목적이 있다. 신속한 약물 전달을 통해 혈중농도를 높이고, 높은 수준의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영양수액 치료와 함께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강남역 연세코앤비 이비인후과

최윤석 원장

광동 경옥고 모델 임영웅 발탁, 캠페인 공개



광동제약은 가수 임영웅을 광동 경옥고 모델로 발탁하고 그가 출연하는 새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광동제약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은 최근 분위기와 경옥고를 선물 목적으로 많이 구입한다는 조사를 반영해 스토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옥고의 주요 효능인 회복력을 임영웅의 시그니처 멘트인 “건강하세요”와 결합해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광고는 ‘약국편’과 ‘마음편’ 두 종류로 제작했다. 광고는 16일부터 TV와 유튜브 등 광동제약 SNS 등을 통해 공개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365mc, 폐지방 재활용 연구 박차…“조단위 경제효과 기대”

바이오 스타트업 모넬셀 공동설립 이식제·필러 등으로 재활용 모색
사회적기업 인증 ‘비콥’ 획득 나서

365mc네트웍스가 바이오 스타트업 모넬셀을 통해 시술 과정에서 배출하는 폐지방 재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ESG 경영 요소 중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및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폐지방, 폐지아 같은 진

료과정에서 나오는 인체 유래물과 관련된 사업이 떠오르는 추세다. 이들 인체유래물은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체유래물 재활용의 길이 열렸다.

모넬셀은 비만 전문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업 365mc네트웍스와 바이오 전문 컴퍼니빌더인 뉴플라이트가 공동설립한 바이오 스타트업이다. 현재 모넬셀은 허벅지와 복부, 팔뚝 등에서 지방을 흡입한 뒤 발생

하기나 의약품 제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건강 및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흡입 시술에서 나오는 폐지방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365mc의 경우 연간 100여 톤의 폐지방을 별도의 비용을 들여 폐기처리하고 있다.

김남철 365mc네트웍스 대표이사는 “K-순환경제 이행계획으로 폐지방을 첨단 의료기기나 의약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연구와 실질적 산업화를 통해 조 단위의 경제효과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모넬셀은 ESG 역량 관련 ‘비콥 인증’ 준비도 나서고 있다. 비콥은 미국의 비영리기관 비랩(B Lab)이 구축한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다. 평가 항목과 측정 기준이 까다롭고, 인증 이후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해 신뢰도가 높다. 현재 파타고니아, 유니레버, 더바디샵, 일리카페 등이 비콥 인증을 받았다.

조승욱 모넬셀 대표는 “모넬셀은 인체 유래물 조성사업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것은 물론, ESG 시대에 발 빠르게 앞서며 투자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투자해 성과를 내고, 단순 ESG 트렌드에 편승하는 게 아닌 지속적인 실질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14일 (목) 음력: 3월 14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모든 일에 지나치게 쉬우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급속히 성하고 곧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이성 관계를 조심하라.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적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라.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되도록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정신적 두뇌활동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날이다.	썰물의 때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때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뱀피를 만나 자문을 구하면 길을 찾을 것이다.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얻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때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력이 대단한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나의 운기가 쇠해서 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 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오늘은 닭날로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맡아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는 때이다. 일하면 할수록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던 사람도 이제부터는 상생일로에 있다. 자신 있게 밀고 나아가라. 흰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 갈 것, 자기 기반을 굳게 닦고 실행할 것, 폭력은 피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기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하는 상생일로에 있다. 자신 있게 밀고 나아가라. 흰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장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의 기운은 인간의 감각이 발동하는 날이므로 연애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남의 간섭이 싫은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로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대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급한 마음을 달래려면 토끼띠생과 대화하라.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 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서류상의 문제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날이다.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04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